

# 5G 성장궤도 안착... 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 1.3조 무난할 듯

(1분기)

5G 가입자 늘고 마케팅 비용 감소  
B2B·IPTV 등 신사업 성장 원인

SKT 전년 비 6.8% ↑... 비통신 성과  
LGU+ 8.6% ↑... 개인 정보 유출에  
유심칩 교환 비용 발생 이슈 전망  
KT CEO 부재 어닝쇼크... 11.2% ↓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3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ARPU(가입자당 평균수익)가 높은 5G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5G 상용화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마케팅 비용 지출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 3029억원이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들 3사의 1분기 합산 매출액은 14조 39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SKT는 10일, LGU+ 및 KT는 11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 3사의 영업이익 개선에는 B2B 사업, IPTV, AI(인공지능) 등 신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거둔 점도 한 몫을 했다.

SK텔레콤의 1분기 매출은 전년 2조 2772억원에 비해 3%가 증가한 4조 403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SKT의 영업이익은 전년 4324억원에 비해 6.8%가 늘어난 4619억원으로 집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SKT의 영업이익률은 1분기에 0.4포인트가 증가한 1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동 3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LG유플러스는 매출 3조 5135억원으로 전년 3조 4100억원보다 3%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836억원으로 전년 2612억원보다 8.6% 증가할 전망이다.

또 영업이익률은 0.3포인트가 증가한 8.0%로 예상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유심칩 교체에 나서면서 유심칩 교환 비용 발생하는 점이 일회성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KT는 어닝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나오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6266억원보다 11.2%가 줄어든 55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매출은 전년 6조 2777억원 대비 3.1%가 늘어난 6조 4734억원으로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CEO 선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지 1달이 지났는데, CEO 선정 난항으로 인한 CEO의 부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수익 746억원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역기저 효과' 때문으로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같은 일회성 이벤트를 제외하면 1분기 실적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T는 현재 대표이사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신사업 추진과 타 기업 투자는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신사업 추진, 기업 투자는 중단됐다. 다만 투자가 들어가지 않아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다"며 "신사업 추진과 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 3사는 지난해 9월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았는데 이로 인해 ARPU 하락 등 단기적 수익 감소가 예상됐지만, 5G 가입자 중 요금을 내리는 수요가 많지 않으면서 1분기에 견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또 비통신 신사업에서 속속 성과를 거두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SKT의 경우 현재 비통신 사업 매출이 20%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2025년까지 4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사들은 AI, 플랫폼,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신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사의 비통신 사업 매출은 2027년까지 67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케이블TV를 인수 합병한 이후 IPTV를 중심으로 가입자 수신료가 증가했고, AI 고객센터인 AICC 사업 등 B2B 사업에서 수익이 나고 있으며, IDC·클라우드에서도 꾸준히 매출을 거두고 있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무선 통신 사업만 가지고 이동사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 3사 모두 비통신 분야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비통신 사업 성과가 향후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동 3사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UAM(도심항공교통) 시장으로 2025년 상용화를 앞두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 중"이라고 분석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통신 3사, BMW와 eSIM요금제 선택

통신 3사가 BMW와 함께 차량 전용 eSIM 요금제를 출시한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차량용 eSIM은 별도의 물리적인 칩 없이 차량에 내장된 식별칩을 활용하여 모바일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BMW 차량 뒷좌석 모니터를 통해 유튜브 등을 보기 위해 통신사 무선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때 차량용 eSIM 서비스가 필요하다. 통신 3사의 첫 차량용 eSIM 요금제는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모회선 데이터 공유 한도 내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통신 3사

통신 3사가 BMW와 함께 차량 전용 eSIM 요금제를 출시한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차량용 eSIM은 별도의 물리적인 칩 없이 차량에 내장된 식별칩을 활용하여 모바일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BMW 차량 뒷좌석 모니터를 통해 유튜브 등을 보기 위해 통신사 무선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때 차량용 eSIM 서비스가 필요하다. 통신 3사의 첫 차량용 eSIM 요금제는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모회선 데이터 공유 한도 내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통신 3사

## KT, 차세대 AI 서비스 로봇 2종 출시

총 5종 AI서비스로봇 라인업 확보

KT가 차세대 AI(인공지능) 서비스로봇 2종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각각 베어로보틱스와 LG전자에서 제작한 모델이다. 주행 안정성과 마케팅 활용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로써 KT는 총 5종의 AI서비스로봇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다.

LG전자의 AI서비스로봇 차세대 모

델은 6개의 독립 서스펜션, 라이더/3D 카메라를 통해 주행 안정성을 개선했다. 또한,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콘텐츠를 10.1인치 디스플레이에 재생할 수 있어 매장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KT 차세대 AI 서비스로봇 2종 모두 태블릿과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돕는 '스마트오더' 서비스와 호출 시스템 등과 서비스 연동을 제공한다. /채윤정 기자

## LS전선, 亞 최대 해저케이블 공장 준공

연면적 3만4816㎡... 약 1900억 투입

LS전선이 아시아 최대규모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가동한다.

LS전선은 2일 강원도 동해시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 해저 4동을 준공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과 명예현

원(주) 대표, 구본규 LS전선 대표 등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공장은 연면적 3만4816㎡로, 높이 172m 초고층 생산타워(수직연속압출 시스템, VCV타워)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7월 착공해 약 1900억원을 투입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알뜰폰도 '5G 중간요금제' 생긴다

'U+유모바일' 3종 요금제 신설  
데이터 125~50GB 구간 제공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의 'U+유모바일(U+UMOBILE)'이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U+유모바일은 데이터 125~50GB 구간에 3종 요금제를 신설하고 유심(USIM), 이심(eSIM), 단말 요금제로 각각 제공한다. 이번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이용 고객의 5G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객들이 사용 패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에 앞선다.

출시된 5G 신규 요금제는 ▲125GB+5Mbps ▲80GB+1Mbps ▲50GB+1Mbps 유심(USIM), 이심(eSIM), 단말 요금제 각 3종씩, 총 9종이다. 유심과 이심 요금제는 5월 1일부터 판매를

<U+유모바일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음성·문자	유심·eSIM 요금제 월 기본 요금	단말 요금제 월 기본 요금
125GB+최대 5Mbps	기본제공	54500원 → 43000원	65000원
80GB+최대 1Mbps	기본제공	52000원 → 41000원	61000원
50GB+최대 1Mbps	기본제공	50000원 → 39000원	58000원

/U+유모바일

시작했으며, 단말 요금제는 5월 내 출시 예정이다. 모든 요금제에 음성, 문자는 기본 제공된다.

유심(USIM), 이심(eSIM) 요금제의 가격은 ▲125GB+5Mbps(4만 3500원) ▲80GB+1Mbps(4만 1000원) ▲50GB+1Mbps(3만 9000원)이며, 단말 요금제의 경우, ▲▲125GB+5Mbps(6만 5000원) ▲80GB+1Mbps(6만 1000원) ▲50GB+1Mbps(5만 8000원)이다.

이번에 출시된 요금제는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경우, 1~5Mbps 속도 데이터 계속 이용할 수 있다. 5

Mbps는 유튜브 1080p 화질을 무난하게 시청할 수 있는 수준이며, 1Mbps는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객은 월 제공량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추가 과금 걱정 없이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미디어로그 조용민 MVNO사업담당은 "이번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고객들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와 가계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고객 만족도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 컴투스 '크로니클', 해외 매출 500억 돌파

글로벌 출시 54일 만에 달성

컴투스의 소환형 RPG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하 크로니클)'이 글로벌 출시 54일 만에 500억 원 매출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크로니클'은 세계 공략을 시작한 지난 3월 9일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매출 목표인 1,000억 원의 절반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대규모 클라베이션 업데이트 이후 스팀 글로벌 종합 매출 순위 6위, 구글 플레이스토어 52개 지역, 애플 앱스토어 11개 지역 RPG 매출 순위 TOP 10에



장기 흥행작 등극, 컴투스 '크로니클' 글로벌 매출 500억 원 돌파. /컴투스

등극했다.

지역별 매출 비중도 태국, 일본, 프랑스 등으로 아시아와 웨스턴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돼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서머너즈 워)'를 잇는 또 다른 글로벌 흥행작의 면모를 확인시켰다.

특히 국산 MMORPG 불모지로 불려왔던 유럽에서 꾸준히 흥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스팀 매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RPG 매출 TOP 10을 벗어난 적이 없을 만큼 흥행 중이다. 유럽 주요 게임 시장인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높은 매출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 중 하나인 미국 구글 플레이스토어 RPG 매출 최고 2위를 달성하는 등 편중되지 않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도 주요 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그치지 않는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히 성장 중인 동남아시아 주요 지역 태국에서 역대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